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 “동행의 길 20년”을 기리며....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랜 시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자비를 실천해 온 소임자 여러분께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후원과 봉사에 솔선해 온 사부대중 여러분과 누구보다도 복지시설을 아끼고 함께 가꾸어 주신 지역주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종단 사회복지재단은 부처님의 자비와 구제중생의 원력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력과 실천은 모든 존재가 상호 관계 속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하나이며, 모든 이가 행복해야 나 또한 행복할 수 있다는 향기로운 마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고른 분배와 소통을 꾀하고,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자비실천행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소중히 하며 ‘내 생명 온전하게, 내 생명 자유롭게, 함께 하는 세상’이라는 관훈 아래 진력을 다했기에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의 노고와 결실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복지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곳을 광주지역 내 불교사회복지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인연을 맺어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사회복지사 등 모든 사대부중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3. 07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자 승 합장